

바이브 메이커 · 무료 자료

쓰레드 자동 발행

클로드 채팅에 프롬프트 4개.
붙여넣으면 글이 올라갑니다.

연결 한 번 · 재료 · 폼 초안 · 내 말투 · 발행

목차

시작 전 · 전체 그림	글은 이미 나옵니다. 안 되던 건 매일이었어요	03
연결 1 · 창구	올리는 길을 직접 뚫으면 다섯 단계입니다	04
연결 2 · 쓰레드	새 연결에서 쓰레드를 고르고 계정으로 계속 누르면 끝	05
연결 3 · 클로드	클로드에는 주소 하나와 승인 한 번	06
프롬프트 1 · 재료	오늘 쓸 거리를 기획서 한 장으로	07
프롬프트 2 · 폼 초안	잘된 글에서 구조만 빌려옵니다	08
프롬프트 3 · 내 말투	AI 티가 나는 건 내용이 아니라 말투예요	09
프롬프트 4 · 발행	마지막은 말 한마디입니다	10
마무리	막히면 여기로 돌아오세요	11

글은 이미 나옵니다.
안 되던 건 매일이었어요

쓰레드 글 하나 뽑는 건 다들 됩니다. 그런데 앱을 열고, 붙여넣고, 다듬고, 올리는 건 매번 내 손이죠. 그래서 사흘 하고 멈춥니다. **이 자료는 그 손까지 클로드에게 넘기는 네 번의 붙여넣기**입니다.



준비물은 셋입니다

- 💬 **클로드** · claude.ai 웹이나 클로드 폰 앱
- 🧵 내 **쓰레드 계정** 하나
- 📝 **잘된 쓰레드 글 5~10개**와 **내가 전에 쓴 글 10개** · 메모장이나 카톡에 모아 둔 걸로 충분합니다

> 📌 **주황 상자를 그대로 복사**해 클로드 채팅에 붙여넣으세요. 바꾸는 건 **대괄호 [ ] 안**뿐입니다. 연결을 한 번 해 두면, 그다음부터는 네 개를 **한 대화 안에서 순서대로** 보내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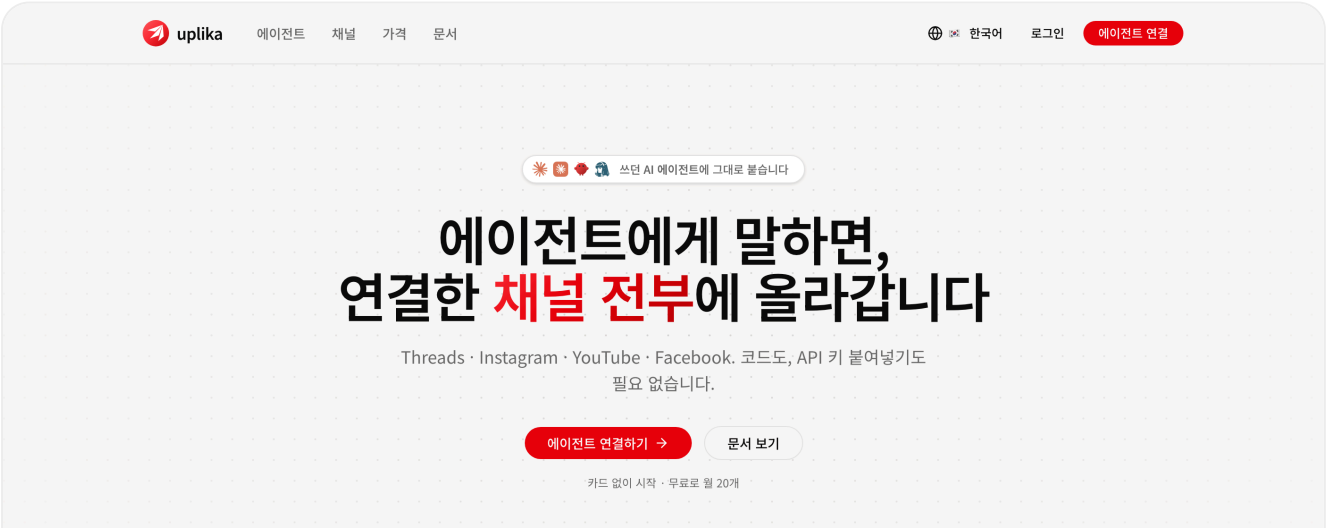
올리는 길을 직접 뚫으면 다섯 단계입니다

쓰레드는 글을 올려 주는 공식 통로가 있는 채널입니다. 다만 그 통로를 여는 데 아래를 지나야 해서, **심사에 대기가 있어 오늘 신청해도 오늘 열리지 않습니다.**

1. 개발자 등록
2. 앱 만들고 채널 연결
3. 발행 권한 심사 신청
4. 검수 대기
5. 토큰 발급 · 만료되면 갱신

⚡ 그래서 창구를 하나 씁니다

uplika(uplika.com)는 위 다섯을 대신 거쳐 둔 발행 창구입니다. 클로드에게 말한 글을 연결해 둔 채널로 올려 줍니다. 가입은 오른쪽 위 **「에이전트 연결」** → 구글 · 깃허브 · 이메일 중 하나. **카드 등록은 없습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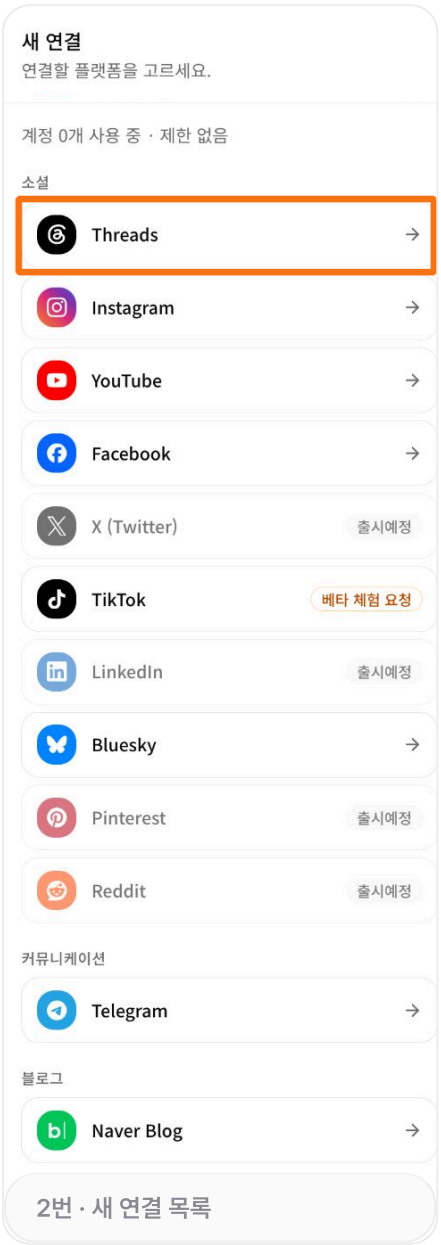


uplika.com 첫 화면 · 오른쪽 위 「에이전트 연결」(2026년 9월 기준 화면)

💡 요금은 지금 베타라 무료, 정식 출시 뒤 무료 플랜 **월 20개**입니다. 화면과 숫자는 바뀔 수 있고, 이 자료는 **2026년 9월** 기준입니다.

새 연결에서 쓰레드를 고르고 계정으로 계속 누르면 끝

쓰레드는 uplika 서버가 바로 올리는 채널이라 **크롬 확장도, 켜 둔 컴퓨터도 필요 없습니다.** 연결만 해 두면 폰 클로드 앱에서 시켜도 올라갑니다. **이 장을 먼저 해야 다음 장이 막히지 않습니다.**



1 **왼쪽 「연결」 → 오른쪽 위 「새 연결」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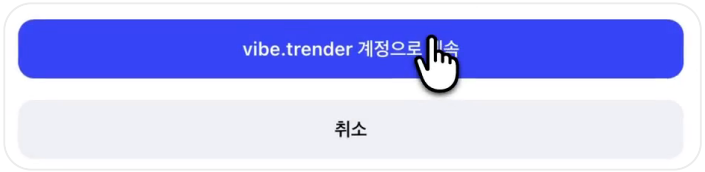


2 **플랫폼 목록에서 Threads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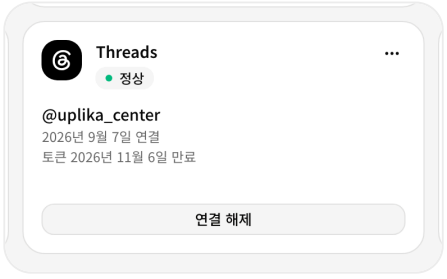
붙일 수 있는 채널이 **소셜 · 커뮤니케이션 · 블로그** 순으로 쭉 나옵니다. 맨 위 **Threads** 를 누릅니다

3 **쓰레드 연결 화면에서 「계정으로 계속」**

쓰레드에 로그인된 내 계정 이름이 버튼에 적혀 있습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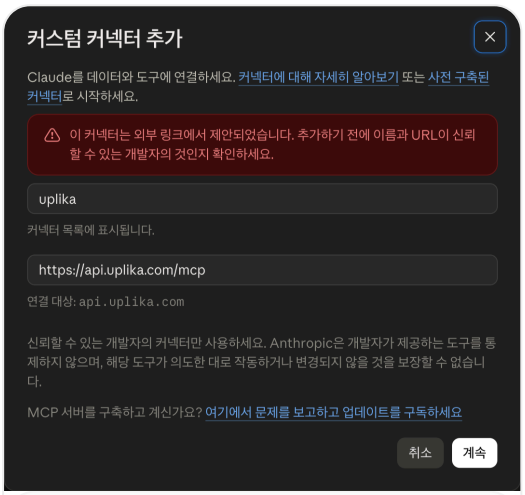
4 **채널 카드에 「정상」이면 끝**



🔒 토큰에는 **만료**가 있습니다. 몇 달 뒤 다른 건 그대로인데 쓰레드만 안 올라간다면, 연결 화면에서 **다시 연결**만 눌러 주면 됩니다.

클로드에는 주소 하나와 승인 한 번

붙여넣을 키도 비밀번호도 없습니다. claude.ai 에서 한 번 붙이면 **같은 계정의 폰 앱**에서도 그대로 씁니다.



2번 창 · 이름과 주소

1 **설정 → 커넥터**
claude.ai 설정의 커넥터에서 **「커스텀 커넥터 추가」**

2 **이름 · 주소 넣고 「계속」**
이름은 **uplika**, 주소는 아래 한 줄. 경고 문구는 연결 대상이 **api.uplika.com** 인지 보라는 뜻입니다

```
https://api.uplika.com/mcp
```

3 **승인 화면에서 「허용」**
연결된 계정 조회 · 발행 기록 조회 · 글 발행 ·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계속 사용, **권한 네 줄**입니다. 앞 장에서 붙인 **채널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서 멈춥니다**

⚡ uplika.com 「에이전트 연결」에서 **Claude 칸**을 누르면 2번 창이 이름 · 주소가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.

🔌 **확인 · 새 대화에 붙여넣기** COPY → PASTE

uplika 에 연결된 소셜 계정 목록을 보여줘.

로드된 도구, uplika mcp server 통합 사용함

현재 연결된 Threads 계정은 하나예요.

- **@vibe.trender** (바이브트렌더) — 상태: 활성(active)

claude.ai 실제 답변 · uplika 호출

✅ **내 쓰레드 계정 이름**이 나오면 연결은 끝입니다. 다음 장부터는 매번 이 채팅에서 합니다.

오늘 쓸 거리를 기획서 한 장으로

읽은 기사, 저장해둔 링크, 메모 한 줄. 무엇이든 좋습니다. 빈 화면에서 시작하면 손이 안 나가지만, **기획서 한 장이 있으면 그다음이 전부 쉬워집니다.**

📩 **프롬프트 1 · 오늘 쓸 재료를 가져온다** COPY → PASTE

[링크 또는 메모]를 읽고, 이걸 내 쓰레드 글로 쓴다면 뭘 쓸지 기획서 한 장으로 정리해줘. 소재 한 줄, 사람들이 모를 만한 핵심 3줄, 어떤 각도로 쓸지 1줄, 출처 링크까지.

✅ 채팅에 소재 한 줄과 **핵심 3줄**이 나오면 된 겁니다.

기획서 한 장에 담기는 것

1. **소재 한 줄**
   무엇에 대한 글인지. 한 줄로 안 써지면 아직 소재가 두 개입니다.

2. **사람들이 모를 만한 핵심 3줄**
   다 아는 이야기는 스크롤을 못 멈춥니다. **몰랐던 것**만 세 줄로 추립니다.

3. **어떤 각도로 쓸까**
   같은 사실도 각도가 다르면 다른 글이 됩니다. 다음 프롬프트가 이 각도를 그대로 씁니다.

💡 링크가 없으면 메모도 됩니다. **"오늘 손님이 물어본 것: 예약을 왜 전화로만 받냐"** 한 줄이면 충분해요. 기획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음 프롬프트가 다듬습니다.

잘된 글에서 구조만 빌려옵니다

터지는 글은 대개 **짜임새가 비슷합니다.** 첫 줄에서 멈추게 하고, 가운데에서 하나를 알려주고, 끝에서 되묻죠. 그 짜임새를 여러 개 모아 두면 내 글에도 쓸 수 있습니다.

먼저 글을 모아 둡니다

📎 저장해뒀던 **잘된 쓰레드 글 5~10개**를 **프롬프트 아래에 이어 붙이거나 텍스트 파일로 첨부**합니다

🧩 **프롬프트 2 · 잘된 글의 폼으로 초안을 만든다** COPY → PASTE

아래에 잘나갔던 쓰레드 글들을 붙여뒀어. 읽고 비슷한 구조끼리 묶어서 묶음마다 폼을 하나씩 정리해줘. 그중 내 기획서에 맞는 폼 하나를 골라 초안으로 바꿔줘. **형식만 참고하고 문장은 베끼지 마.** 첫 줄은 스크롤을 멈추게, 전체는 500자 안에.
[잘된 쓰레드 글 5~10개 · 붙여넣기 또는 첨부]

✅ **폼 목록**과 **초안 하나**가 나오면 된 겁니다. 초안이 500자를 넘으면 마지막 프롬프트에서 걸립니다.

빌려오는 것
첫 줄이 서는 자리, 문단이 끊기는 지점, 마지막 한 줄의 역할. **뼈대**입니다.

빌려오면 안 되는 것
문장 그 자체. **남의 문장을 옮기면 그건 내 글이 아니고, 계정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.**

✏️ 쓰레드는 **한 글에 500자**까지이고, **이모지는 한 개를 4자로 셉니다.** 그래서 초안 단계에서 미리 맞춰 둡니다. 넘긴 채로 발행까지 가면 마지막에 되돌아와야 하니까요.

AI 티가 나는 건 내용이 아니라 말투예요

초안은 정확한데 어딘가 남의 글 같습니다. 어미가 다르고, 내가 안 쓰는 단어가 섞이고, 너무 반듯하죠. **말투만 갈아끼우면 같은 글이 내 글이 됩니다.**

내 글도 모아 둡니다

📎 **내가 전에 쓴 글 10개를 프롬프트 아래에 붙이거나 첨부합니다**

💬 **쓰레드에 쓴 글이 없다면? 카톡·메모에 쓴 아무 글이나 넣어도 됩니다. 말투는 거기 다 들어 있어요**

🗣️ **프롬프트 3 · 내 말투로 바꾼다** COPY → PASTE

아래에 내가 전에 쓴 글 10개를 붙여뒀어. 읽고 **내 말투만** 잡아줘. 어미, 자주 쓰는 말, 반말인지 존댓말인지. 그걸로 초안을 바꿔줘. 글 짜임새는 건드리지 말고 말투만.
[내가 쓴 글 10개 · 붙여넣기 또는 첨부]

✅ 읽었을 때 **내가 쓴 것처럼** 들리면 된 겁니다. 구조는 앞 장 그대로여야 해요.

건드리는 것
어미(~해요 / ~함 / ~인데) · 자주 쓰는 말 · 감탄사 · 반말인지 존댓말인지

안 건드리는 것
문단 순서 · 첫 줄의 자리 · 마지막 한 줄의 역할. 그건 앞 프롬프트가 잡아준 뼈대입니다

💡 두 가지를 한 프롬프트에서 같이 시키면 둘 다 어설퍼집니다. **구조 따로, 말투 따로.** 나눈 이유가 이겁니다.

마지막은 말 한마디입니다

앞에서 붙여 둔 창구가 여기서 쓰입니다. 다만 **바로 올리게 두지 않습니다.** 어디에 올릴지 먼저 보여주고, 내가 "올려" 라고 해야 나가게 조건을 겁니다.

🚀 프롬프트 4 · 올린다 — COPY → PASTE

완성된 글을 uplika 로 쓰레드에 올려줘. 조건:

1. 올리기 전에 **연결된 계정 목록을 먼저 확인**하고, 어디에 올릴 건지 나한테 보여줘.
2. 내가 "올려" 라고 하기 전에는 올리지 마.
3. 500자가 넘으면 올리지 말고 어디를 줄일지 물어봐.
4. 올라가면 글 주소를 알려줘. 오늘 올린 날짜와 주소는 표 한 줄로 정리해줘.

✅ **글 주소**가 돌아오고, **날짜 · 주소 표**가 나오면 된 겁니다.

조건 네 줄이 하는 일

1 · 확인 — 채널을 여러 개 붙였으면 **엉뚱한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** 먼저 물어보게 합니다.

2 · 멈춤 — 읽어 보고 올리는 습관. **"올려" 라고 말하는 순간이 그 글을 처음 제대로 읽는 순간**이 됩니다.

3 · 길이 — 500자가 넘으면 **통째로 안 올라갑니다.** 발행 전에 걸러야 되돌아오는 일이 없어요.

4 · 기록 — 표를 메모장에 모아 두면 **나중에 뭐가 반응이 좋았는지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**가 됩니다.

🧵 **줄이기 싫은 긴 글이라면** 「첫 글 밑에 답글로 나눠서 이어 올려줘」라고 하세요. 첫 글이 먼저 올라가고 답글이 차례로 붙습니다. **한 편마다 500자**는 똑같습니다.

막히면 여기로 돌아오세요

이런 증상이면	돌아갈 곳
도구가 하나도 안 보인다	채널부터 · 5쪽
도구가 일부만 보인다	승인 다시 · 6쪽
계속 로그인하라고 한다	커넥터 지우고 다시
엉뚱한 계정에 올라갔다	조건 1 · 10쪽
글자수 때문에 막힌다	조건 3 · 10쪽

🌱 **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.** 남의 문장을 옮기지 않는 것, 같은 글을 돌려 쓰지 않는 것 둘만 지키세요. 정식 출시 뒤 무료 한도가 월 20개인데, **그 한도가 먼저 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.**

여기까지는 네 번 붙여넣는 방식입니다

매일 네 번 붙여넣으면, 결국 안 하게 됩니다. **이 넷을 한 번에 묶어 두면 한 마디로 돌아가고, 화면이 바뀌어도 한 칸만 고치면 됩니다.**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.

📮 **새 자료가 나오면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· 바이브 메이커 팔로우 · 단톡방**